

청렴하지도 신뢰받지도 못하고 있는 한국종교

조계종 불교사회연, 2012 대국민 여론조사 발표

불교를 비롯한 개신교, 가톨릭 등 주요 종교에 대한 신뢰도가 바닥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교의 근본 역할인 사회적 치유에 대한 인식도 대체적으로 부정적이었다. 조계종 불교사회연구소(소장 법안)는 11월 13일 '한국의 사회·정치 및 종교에 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발표했다. 지난해에 이어 시행된 이번 여론조사는 종교에 대한 사회 인식의 변화를 알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지난해에 이어 사회적 영향력이 가장 높은 종교로는 개신교(43.3%)가 꼽혔으며, 가톨릭(24.1%)과 불교(19.1%)가 뒤를 이었다. 가장 믿음이 가는 질문에 대해서는 가톨릭이 27.1%로 가장 높았고, 불교가 23.8%, 개신교가 11.2%였다.

하지만, 종교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국민들은 부정적으로 봤다. 종교의 역할인 치유에 대한 질문에 절반에 못 미치는 46.9%가 긍정적 의견을 제시했으며, 42.7%가 부정적 의견을 내놨다.

한국사회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기관에서도 종교 단체의 신뢰는 바닥 수준이었다. 34.3%가 시민단체(NGO)를 신뢰하는 단계로 꼽았으며, 종교계가 5.4%, 사법부 5.3%로 뒤를 이었다.

종교 단체 재정 투명성에 대해서는 다수인 76.6%가 '투명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가장 불투명한 종교로는 개신교가 43.3%로 가장 높았고, 불교(11.5%)와 가톨릭

(11.3%)이 뒤를 이었다. 한국 종교가 사회적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할 덕목을 묻는 질문에 대해 '도덕성'이 32.1%로 가장 높았다. 비슷한 덕목이자 종교의 생명인 청렴성(14.2%), 공정성(13.8%)도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에 대해 박수호 덕성여대 사회학과 겸임교수는 "종교가 지니는 분연의 역할에 대해 대중들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는 종교가 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는

종교 치유 여부에 42% 부정적 시민 76% "종교 투명치 않다" 영향력은 개신교가 가장 높아 신뢰는 가톨릭... 불교 어중간 대선후보 종교 선택 영향 없어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국 종교가 가장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은 도덕성과 청렴성 등으로 조사된 만큼 종교 본연의 자세를 지켜가는 데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최대 이슈인 제18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질문도 눈길을 끄는 부분이다. 대통령 후보자 자격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에 대해 국민들은 도덕성(23.8%)을 가장 높게 꼽았고, 개혁 의지(16.3%), 미래 비전(16.1%)도 높게 고려하는 부분

이었다. 하지만 후보자의 종교에 대해서는 0.4%만이 고려해 가장 낮은 요소로 나타났다.

대선이나 주요 선거 때마다 이뤄지는 종교단체의 직·간접적인 정치 참여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대체적으로 부정적이었다.

종교단체의 부정선거 감시활동 참여에 대한 질문에 60.2%가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으며, 29.9%가 긍정적 의견을 보였다.

종교계가 정책 제안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66.3%가 부정적 의견을, 24.2%만이 긍정적 의견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공무원들의 종교 차별 금지에 대해서는 76.2%가 긍정적 의견을, 학내 종교 교육에 대해서는 63.6%가 부정적 의견을 보였으며, 종교평화법 제정은 50.4%가 제정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번 조사에 대해 불교사회연구소장 법안 스님은 "정치, 사회, 신앙 등의 부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조사하고 불교 발전에 기초 자료를 수집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대 흐름에 조응한 정책 방향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주)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해 19세 이상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과 전화 조사를 통해 이뤄졌으며, 신뢰 수준 95%, 표본 오차 ±2.5%다.

신종일 기자 moip79@hyunbul.com

관련 기사 3면

"제도 도입 때 행정력 고려해달라"

서울 구별 사찰 주지들 연석회의서 비판 '한 목소리'

"새로운 행정제도가 하나씩 생길 때마다 일선 사찰에서는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사찰 행정력과 포교 현장에 맞는 제도가 시행돼야 합니다." (수국사 주지 원담 스님)

"40년 동안 모은 등록신도가 40만, 2년 동안 모은 조계종 멤버십 신도가 19만 명입니다. 새로 시행 중

인 신도포계 가입자가 6만 명이라 들었습니다. 사찰 포교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 시행은 시정돼야 합니다." (화계사 주지 수만 스님)

서울 지역 조계종 사찰 주지 협의체인 '직할교구 상임위원 및 서울 구별대표 연석회의'에서 신도포계 제도와 합동 신도포계변회 등 포교

원 쟁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 쏟아졌다.

직할교구사무처가 개최한 이날 회의에서 조계사, 국제선센터, 수국사 등 20여개 서울 시내 사찰 구별 대표들은 안건으로 올라온 합동 신도포계변회와 기존 구별 협의회를 3-4개씩 묶은 권역별 협의회 구성을 모두 부결 시켰다.

수국사 주지 원담 스님을 비롯한 대표 스님들은 "제도 도입에 있어 사찰행정력과 현실성을 고려해달라"고 주문했다. 노덕현 기자



위용 드러낸 한마음선원 부산지원 새법당

불도(佛都) 부산에 새로운 전통문화도량이 위용을 드러냈다.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지원장 혜도)은 11월 11일 새법당 준공법회를 봉행했다. 부산지원의 대웅전은 최기영 중요무형문화재 74호 대목장 등 시대의 명장들이 대거 참여해 현대 한국불교건축사에 다시 없을 예술품으로 조성됐다. 또한 108평 규모에 외1포, 내13포로 지어진 목조 건축물은 유래가 없다고 평가받고 있다. 한편, 이날 준공법회에는 지역 주요 사찰 스님과 내외빈 등 사부대중 1만여 명이 참석했다. 관련 기사 5면 글= 신종일 기자 · 사진= 박재관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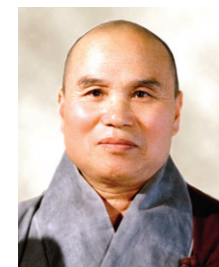
고승 탄신·열반 100주년 선양 '활발'

경허·성철·서옹 스님 사업회들 기념사업 전개

한국 근현대 불교에 가장 뚜렷한 족적을 남긴 경허(1846-1912), 성철(1912-1993), 서옹(1912-2003) 스님의 입적·탄생 100주년을 맞아 불교계가 기념사업을 활발히 전개한다.



경허 스님



성철 스님



서옹 스님

성철 스님이 설립한 백련불교문화재단(이사장 원택)은 11월 29-30일 동국대에서 세계적인 남방불교 연구자 피터 스킬링 등이 참여하는 '불교의 명상-고대 인도에서 현대 아시아까지' 주제 국제학술포럼을 개최한다. 2011년 '퇴공성철과 현대 한국불교'를 주제로 네 차례 학술포럼을 연 데 이어 성철 스님 사상의 본질인 돈오돈수와 한국 불교의 수행법을 집중적으로 살피는 자리다.

백련불교문화재단은 11월 26일 성철 스님이 강설한 '선림보전'을 토대로 '성철 큰스님 강설 선이록 강좌'도 연다.

조계종 5대 종정과 전반기 장성 백양사 방장을 지낸 서옹 스님도 기념사업이 추진된다. 장성 백양사(주지 진우)는 11월 23일 원로의원과 각

교구본사 주지, 신도 등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사람 운동 결사법회'를 열고 서옹 스님이 생전 주창한 '참사람 운동'을 본격 추진한다.

백양사는 서옹 스님의 유지를 받들고 실천하는 '참사람 운동본부'를 출범하며 본부 내 연구소를 만들어 각종 학술세미나와 법회도 열 예정이다. 11월 15-31일에는 기념 전시회 '참사람의 향기'를 열고 스님이 사용했던 지필묵(紙筆墨), 가사·장삼, 원고, 사진 등을 공개한다. 열반 100주년인 2013년에는 서울에서도 전시회가 열린다.

백양사 주지 진우 스님은 "올해를

기화로 앞으로 서옹 스님이 주창한 참사람 운동을 더 알차고 지속적으로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허 스님 열반 100주년을 기리는 행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경허 스님의 '주색(酒色) 문제'를 다룬 <불교평론> 폐간과 논란으로 연기된 학술세미나가 21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열린다.

'경허선사 열반 100주년 기념사업회'는 12월 중으로 그동안 발간된 <경허집>을 총괄하는 정본 <경허집>을 재발간 할 예정이다. 또 수석사에서 2013년 4월 국제선수행법회와 문화제도 개최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915호 INDEX

종합 2·3
조계종 교무원 대승불교 세미나
조계종 총회위원장 향적 스님 인터뷰
동산반야회 창립 30주년 법회
포교원 UN방문 평화메시지

신행 6
변화의 중심 전통사를 가다

화엄만다라 16·17
각목 · 대림 · 황경환



마음·명상 27
존 카밧진 박사



현대불교 법보시
ARS 후원
060-700-1080

지구 환경을 해치는 종이컵 대신 이제부터 (범어가 담긴 에코컵)을 사용하세요. 늘 곁에 두고 음미하고픈 대항스님의 법어!

도자기 범어가 담긴 에코컵

series 1. 마음 series 2. 대장부

한잔의 여유와 함께 마음을 음미하다...

한해동안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종이컵은 무려 120억 개 이상! 이만큼의 종이컵을 만들려면 무려 1000억원이 들어가고 7만 783톤의 천연펄프를 수입해야 하며 나무 1500만그루의 생명을 앗아갑니다. 1년 소비를 위한 종이컵을 생산할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은 13만 2천톤 4725만그루의 나무를 심어야 흡수할 수 있는 양이고요 종이컵 1개를 만들때 사용되는 물은 200리터 120억개면.. 여기서 끝은 아니죠? 재활용비용 13.7% 처리비용만으로도 연간 60억원이 들어가고 종이컵 1개가 썩는 데는 무려 2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size check
— 75mm —
75mm
— 55mm —

보관도 편안하고 공간도 적게! 차곡차곡 쌓아 보관하세요
일반 머그컵보다 작고 종이컵보다는 큰 크기!
알맞은 크기로 커피 타 마시기에도 안심맞춤!

종류	구 성	판매가
A set	마 음 + 대장부	9,000
B set	마 음 + 마 음	9,000
C set	대장부 + 대장부	9,000

3세트 이상 구매시 택배비 무료 (택배비 3,000원)

1. 마음 범어: 그 마음 그대로 부처이시네
2. 대장부 범어: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비범한 대장부가 되라

판매처: **현불삼 ☎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